

시론



조영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그 '마음먹기'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며 축적된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이 만들어 낸 정서적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순간의 감정과 오늘의 기분은 정서로 이어지고, '나'라는 인간을 만든다.

그렇다면 정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서가 안정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학업 성취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따뜻한 공감과 정서적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만의 지속적인 동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학업 성과를 극대화하며 학습을 지속할 힘을 얻는다.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교육 환경에서, 안정적인 정서와 내적 동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긍정적인 정서는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정보의 이해력과 기억력을 높인다. 가령,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이끈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해 정보 처리 능력을 방해하

나 학습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들은 내면에 축적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촉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학업 성과의 극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서적 지지와 공감은 교사가 제공해야 할 핵심 요소다. 교사는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실패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못했니?"라는 비난보다 "어떠한 점이 어려웠니?"처럼 문제해결 중심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각기 다른 학습 수준을 존중해 줘야 한다. 반대로, 작은 성공 경험 일지라도, 이를 "잘했어"라는 추상적인 칭찬보다, "오늘은 네가 문제를 단계별로 나눠 차근차근 분석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태도가 돋보였어"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용기와 동기를 불어넣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한다.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면, 학생들은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발표를 두려워하는 학생에게 "발표 전에 몇 번 연습해볼까? 내가 같이 도와줄게. 네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훨씬 자연스러울 거야"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면, 학생은 점

진적으로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공감을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진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경쟁 중심의 분위기를 줄이고,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놀이와 예술 활동처럼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정서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분간의 놀이와 매일 꾸준히 하는 음악·미술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안정감을 찾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미래 사회를 향한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서적 기반과 서로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탐구하도록 해야 한다.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교육은 학생들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주체로 성장시킬 것이다. 학생들이 내면을 탐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배움을 확장할 때, 교육은 단순히 성취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 결국, 미래를 여는 열쇠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정서와 공감의 힘일 것이다. 교육이란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학생들 마음의 문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社說

정부·민주당 나선 군공항 광주시 역할 여전히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을 논의할 '광주·전남 상생발전TF'를 구성, 운영한다. TF는 행정 통합, 에너지 문제 등을 망라해 주요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도 12월 중 실무회의를 열고 재가동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이에 광주시는 독자 추진했던 무안군민과의 열린대화방 운영을 중단하고, 12월 초 계획한 공항도시 미래비전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중지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함흥차사' 발원 사과에 이어 12월 데드라인도 철회했다.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자를 지정한다는 김영록 지사와 견해를 달리한 부분인데, 물러났다. 광주시는 민간·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상생발전TF에도 참여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광주시의 요청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자금처럼 당사자 간 감정섞인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결국에 헛바퀴가 되고

말 것이다. 무안군의 마음을 얻는 것이 변수가 되는 셈이다. 광주시는 확장된 논의 구조에 의미를 두고 있고, 전남도는 진정성 있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난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긴밀 협력해 무안군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공항 이전에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할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도가 예정한대로 급급적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TF가 민간·군공항 통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범정부협의체도 국가 안보 관련 중대 프로젝트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의견을 절충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도 물밑에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의정갈등 따른 임용 대기 간호사들 구제할 방안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불통이 예비 간호사들에게도 튀었다. 전공의 무더기 이탈로 환자가 줄어들고 종합병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식 임용을 회피하는 때문이다. 정년 퇴임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도 TO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2023년도 간호사 채용시험에서 450명을 합격시키고 284명을 임용했다. 그러나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107명은 아직껏 자리가 없다. 2024년도에도 220명이 선발돼 있다. 조선대병원에도 155명이 공개 시험을 통과해 1년째 대기하고 있다. 두 병원은 올해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동안 대학병원 내 간호직렬은 필요 인원이 많고 이직률이 높아 매년 수백명을 선발해왔다. 현원보다 많이 뽑아놓고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순번대로 발령내는 식이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예비 간호사의 기약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렵다는 취직에 성공했지만 직장 출근이 막혀있다. 여기에 전남대·조선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중환자 중심 전환 사업'에

선정돼 일반 입원실 병상, 경증 외래 진료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신규 임용은 더욱더 '좁은 문'이 됐다.

두 병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에 구조 전환까지 더해 간호사가 오히려 남아도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채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1년 넘도록 방치되는 예비 간호사들을 구제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뽑아놓은 간호사마저 순차적으로 발령이 되지 않으면서 간호대 학생들도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고려하는 등 연쇄 파급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경영난에 빠진 병원들이 임용을 잠정 포기했다. 예비 간호사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며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 간호사 문제 뿐 아니라 현장 간호사 무급 휴가,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간호계가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에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복합갈등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늦기 전에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

기고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

빈집 문제는 단순한 방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주변으로 무질서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환경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의 빈집 문제는 농촌을 넘어 도시와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언론사는 최근 '용인시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방치된 빈집들은 깨진 유리창처럼 지역 사회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약 13만 2천여동에 이르며 그 중 약 68%가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다. 전남도는 빈집 비율이 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최근 5년간 7천800여동이 새로 발생했다. 빈집은 방치될수록 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빈집 지붕이나 담장이 붕괴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빈집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빈집은 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빈집 증가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빈집 정비’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에 따르면 빈집이 늘어날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이 약 2천965만원 하락한다고 한다. 빈집은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주민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쇠퇴를 가속화시킨다.

빈집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빈집이 900만 채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빈집도 1천608만채에 달해 인근 지역의 범죄율을 19%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헝가리도 공실률이 1.23%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저마다의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년)의 조사에 따르면 빈집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소득 격차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기존 주민이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기면서 주택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와 교육, 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을 떠나면서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또,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낮기 때문에 빈집 매매가 어려워 방치되는 빈도가 높다.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 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강진군의 월 1만원 임대주택인 '강진품에'와 나주시의 '빈집 재생을 통한 귀농·귀촌인 거주공간 조성' 등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농촌 지역 빈집 소유자 중 80.6%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 빈집 정비에 한계도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르면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다. 전남도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도비를 투입해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7년까지 빈집 1만동을 정비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빈집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빈집 철거에는 동당 평균 1천만원이 소요되며 도내 전체 빈집을 정비하려면 약 2천100억원이 필요하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자치사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빈집으로 인해 범죄와 화재가 증가하고 공공 환경이 훼손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 범죄, 환경 문제, 공공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빈집 정비에도 국가적 예산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침 강원도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 소멸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빈집 문제는 지역 주민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경고하듯 방치된 빈집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빈집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자체의 노력에 응답하는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될 때 지방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빈집 문제 해결과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국가적 지원은 지금이 그 시점이다.

독자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

상습 음주운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은 무려 977명이나 되고 이들은 벌금을 내면 2-5년 후에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다. 음주나 무면허 3회 위반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시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

하다.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계속할 것이다. 일말의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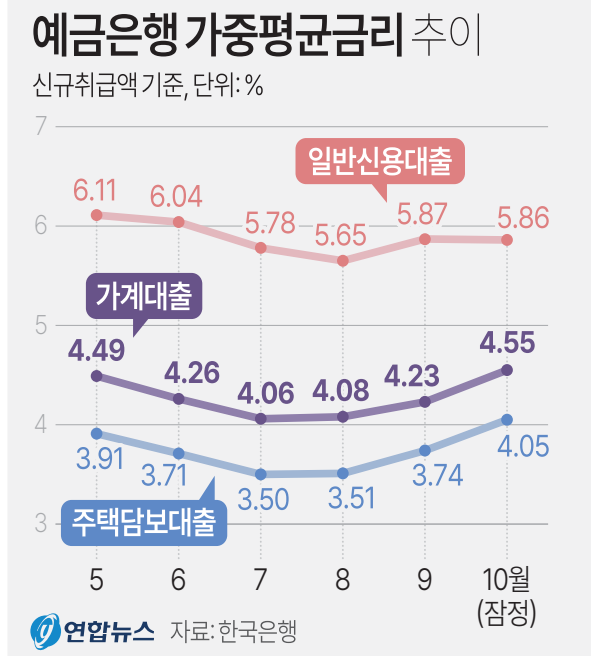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예금금리 ↓ ...가계대출 금리 석달째 ↑ ·25개월만에 최대폭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개월 연속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 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5%로 전월(4.23%)보다 0.32%포인트(p) 올랐다. 8월(+0.02%p), 9월(+0.15%p)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고, 2022년 9월(+0.39%p)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74%에서 4.05%로 0.31%p나 올랐다. 역시 3개월 연속 상승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p) 이후 최대 오름폭 기록이다.

하지만 신용대출(5.86%)은 한 달 만에 0.01%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4.71%)는 0.06%p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62%에서 4.67%로 0.05%p 상승했다. 두 달째 오름세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7%로 9월(3.40%)보다 0.03%p 하락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